

제23차 환태평양 변호사협회(IPBA) 총회

축 사



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

2013. 4. 18.

대 법 원 장

존경하는 랄릿 바신(Lalit Bhashin)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님, 신영무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,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!

환태평양 변호사협회가 서울에서 제23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.

지난 1991년 출범한 환태평양 변호사협회는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 변호사들로 하여금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, 그리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이 지역 법과 제도의 발전을 선도하여 왔습니다. 이는 아시아·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에 법의 지배를 증진·확립하는 데 있어

큰 기여를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한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!

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각종 제도의 세계화 조류 속에서 국가 간의 장벽은 점점 얹어지고 온 세계가 가까운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특히 우리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은 우리 법률가에게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시기에 이번 2013년 서울 총회에서 ‘역동

적인 아시아 : 법과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'이라는 주제로 이 지역에서의 법과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,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소중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도 최근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신속히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 결과 최근 세계은행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우리 사법부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법절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사법부는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국내외 사법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편적 가치

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제도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·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류 공동체 전역에 법치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

아무쪼록 이번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값진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이 지역 국가들의 사회·경제·정치 모든 면에서 화합과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

2013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,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,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의

멋과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한껏 느껴볼 수 있기를
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3. 4. 18.

대법원장 양 승 태